

聖語藏經卷과 正倉院文書*

- 聖語藏 『神護景雲二年御願經』을 중심으로 -

On the Hand-copying Sutras Preserved in Shogozo(聖語藏) and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正倉院)

- around Jingo-Keiun Ni Nen Gogankyo(神護景雲二年御願經) in Shogozo(聖語藏) -

飯田剛彦 (Takehiko, iida)**

◁ 목 차 ▷

- | | |
|-------------------------------|-------------------------|
| 1. 서언: 聖語藏·聖語藏經卷이란 | 5. 관련되는 제 문제 |
| 2.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문제점 | 6. 聖語藏 『神護景雲經』의 실체 |
| 3. 성어장 「신호경운경」과
관련되는 사경 사업 | 7. 결론: 성과와 과제
<참고문헌> |
| 4. 同定の手法 | |

< 초 록 >

일본의 정창원이 관리하는 성어장경권은, 수·당으로부터의 舶載經, 光明皇后發願一切經을 비롯하는 奈良朝寫經 등으로 구성된다. 경권의 일대 수집품이다. 그 가운데 稱徳天皇의 發願에 의한 일체경 『神護景雲二年御願經』으로서 740권이 정리되어 있으나, 願文이 있는 것은 불과 4권뿐이고, 대부분은 근대에 이르러 정리할 때에 料紙나 書風에 의해 『景雲經』이라고 분류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卷末紙背에 남아 있는 기입과 정창원문서와의 대응관계를 다시 정밀 조사함에 의해, 실제로는 대부분이 寶龜年間(770-781)에 서사된 今更一部一切經이라는 일체경입이 판명된다. 금후에는 底本이라고 생각되는 光明皇后發願一切經과의 비교나, 경권에 남은 다양한 흔적과 정창원문서 기재와의 照合 등을 통하여, 奈良朝寫經의 실태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소재로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要語: 奈良朝寫經, 성어장경권, 정창원문서, 神護景雲二年御願經, 今更一部一切經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2-A00091).

** 일본, 궁내청 정창원사무소(takehiko.iida@kunaicho.go.jp)

접수일: 2013년 12월 14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e hand-copying sutras in Shogozo(聖語藏) of SHOSOIN(正倉院) were consisted of many Nara hand-copying sutras, which consisted of the buddhist sutras, such as *Komyo kogo hotsugan issaikyou*(光明皇后發願一切經) etc, and handed down to overseas. They were a great collection of the hand-copying sutras. One portion of them was divided into 740 items, such as *Jingo-keiun ni nen gogankyo*(神護景雲二年御願經) made up by the vow of the Emperess Shotoku(称徳天皇), but there were only 4 items which have the optative sentence, the others were, by mistake, grouped into *Keiunkyou*(景雲經) based upon their paper and calligraphy in the modern times. It was recently revealed that most of them were in *Ima-ko-ichibu issaikyo*(今更一部一切經) which were copied in Hoki(寶龜) era(770-781) in accordance with the complete checkup of the corresponding relation between the record written in the back side of the end part of the hand-copying sutras and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正倉院文書). We are expecting the usage as the materials to study the aspect of Nara hand-copying sutras by investigating the link between the various records on them and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 or comparing with *Komyo kogo hotsugan issaikyou*.

Key words: Nara manuscrip scrolls, manuscript scrolls preserved in Shogozo(聖語藏) of SHOSOIN(正倉院),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正倉院文書), *Jingo-keiun ni nen gogankyo*(神護景雲二年御願經), *Ima-ko-ichibu issaikyo*(今更一部一切經), etc.

1. 서언: 聖語藏 · 聖語藏經卷이란

성어장경권은 東大寺 塔頭 · 尊勝院의 경장인 성어장(<삽화 1>)에 전해진 불교 경전군이다. 나라시대에 동대사의 소장이 된 경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 尊勝院이 廢絶하는 室町時代 말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된 불교경전에 의해 구성된다. 성어장 · 성어장 경권은 明治 26年(1893)에 帝室에 헌납되어, 당시의 궁내성이 관리하기 위해, 同 29年에 정창원 부지내로 옮겨 현재에 이른다.

明治時代に 帝室에 헌납된 후, 明治 43년부터 帝室博物館에 의한 경권의 분류 정리 · 수리가 시작된다. 정리의 결과는 『正倉院聖語藏經卷目錄』(奈良帝室博物館, 昭和 5年[1930])(<삽화 2>)에 정리되어, 현재도 그 종류 · 호수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 경권의 총 권수는 4,960권이다.¹⁾

明治時代の 정리 결과, 성어장 경권 중에서도 특히 ‘寫經之部’는 隋經과 唐經이라는 중국에서 전래된 두 가지의 사경, ‘天平十二年御願經’(光明皇后[聖武天皇의 황후] 發願의 소위 ‘五月一日經’)과 ‘神護景雲二年御願經’(稱徳天皇[聖武天皇의 딸] 發願인 神護景雲經)이라는 두 가지의 勅願一切經을 주축으로 하는 寫經群이라는 것이 명시되었다(<삽화 3>).

이들은, 大正 11년(1922)부터 昭和 2년에 걸쳐 동경으로 운반되어, 『大正新修大藏經』의 교정에 사용되었다. 平成 12년(2000)부터는, 丸善주식회사에 의해 『聖語藏經卷』 디지털版으로서 컬러 디지털 화상을 모은 CD · DVD가 간행되었다(현재, 第6類 乙種寫經의 第1回 配本분까지 제작). 성어장 경권은, 불교학(『大正新修大藏經』 등 通行本の 교감, 돈황사경 등과의 비교 연구, 수 · 당대 불전의 상황 파악), 역사학(정창원문서와 병행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당시의 불교 수용의 실제, 사경 사업의 운영 실태가 판명), 국어학(胡粉으로 적힌 白点を 가진 경권이 다수 傳存한다. 平安時代 초기에 시작되는 최초의 훈점 자료), 서예학 등, 제 분야에 의한 연구 대상이 되는 극히 귀중한 자료이다.

1) 詳細한 것은 이 책에 수록된 杉本一樹의 論文을 參照할 것.

2.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문제점

신호경운경은, 聖武天皇의 딸인 稱徳天皇의 御願에 의해 서사된 일체경이다. 두껍고 갈색이 강한 料紙를 사용하고, 奈良朝 後期 寫經의 특징인 굵은 필적으로 적힌 경권으로, 성어장에는 신호경운경으로 분류되는 경권이 742권(정리 결과, 現狀으로는 740권)이 있다.

나라시대의 주가 되는 사경 기관에는, 크게 나누어 황후궁직²⁾계의 사경기관과 內裏系의 사경기관이 있다. 전자는 동대사에 설치된 사경소로 이어지고, ‘五月一日經’이나 ‘大官一切經’·‘後寫一切經’³⁾ 등을 서사했다. 한편, 후자는 ‘聖武天皇 發願一切經’이나 ‘神護景雲經’을 서사한 사경기관이다. 동대사에 전해진 정창원 문서는 전자에 관련되는 사경소 문서이므로, 五月一日經의 제작 공정은 상세하게 아는 것이 가능하나, 후자에 소속되는 신호경운경에 대해서는 개요만 알 수 있다.

성어장 소장 『신호경운경』에서 최대의 문제점은, 神護景雲 2年(768) 5月 13日의 稱徳天皇 발원문이 권말에 있는 경권이 단지 4권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명확하게 신호경운경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이 4권뿐이다. 그 외의 성어장의 신호경운경은, 料紙나 필체 등을 근거로 해서 분류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五月一日經에 願文이 있어, 스스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월일일경과 신호경운경과의 비교대조표를 이하에 보인다(<표 1>).

2) 皇后宮職은 光明皇后 立后 때에 설치되었다. 황후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 사경 기관 외에 불상의 제작을 행하는 造佛所 등의 附屬 官司가 몇 가지인가 존재했다.

3) 大官一切經은 天平 15年 4月 1日에 서사가 시작된 聖武天皇 發願의 一切經이다. 同年 末에 중단된 후, 先寫一切經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同 18年 1月부터 서사가 재개된다. 이 재개와 連動해서 새롭게 개시된 一切經 서사 사업이 後寫一切經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표 1> 五月一日經과 神護景雲經과의 비교

	五月一日經	神護景雲經
願主	光明皇后	稱徳天皇
願文의 年月日	天平 12年(740) 5月 1日	神護景雲 2年(768) 5月 13日
願文의 有無	대부분 있음	聖語藏에서는 4권만 있음(성어장 이외로는 십수권이 현존한다)
總卷數	약 7,000권	6,500권 이상
聖語藏內卷數	750권 (庫外의 경권을 합하면 1,000권 정도)	740卷
寫經主体	皇后宮職・造東大寺司 系統의 사경소	內裏 系統의 사경소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발원문이 붙어 있는 신호경운경은 성어장보다도 항간에 많이 남아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무언가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성어장의 『神護景雲經』 740권 전권에 대해서, 정창원 문서와의 대응이나 필적을 단서로 해서, 그 실체에 관한 검토를 했다.

3. 성어장 「신호경운경」과 관련되는 사경 사업

전술과 같이 정창원 보고에 전래된 정창원문서의 본질은 사경소문서이다.⁴⁾ 나라시대에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사경소가 대량의 경권을 서사했다. 동대사에는 사경소가 설치되어⁵⁾ 대량의 사경소 문서를 남겼다. 사경소 문서의 분석에 의해, 사경 사업의 내실과 진행 상황이 밝혀진다. 이하는 대략적인 사경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작성된 사경소 문서를 열거한 것이다.

4) 정창원문서라고 하며, 일반의 일본인이 떠올리는 것은 호적 등의 律令公文書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존 기간 만료 후에 폐기되어, 紙背가 사경소 문서로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우연히 남은 것으로, 어디까지나 정창원문서의 실체는 사경소문서라는 事務帳簿群이다.

5) 光明子の 사적인 사경조직으로서 발족하여, 天平 元年(729) 立后 後の 皇后宮職 管下의 사경기관을 거쳐, 同 20年頃부터 동대사의 조영기관인 造東大寺司의 관하가 된다.

○ 사경 사업의 흐름과 사경소 문서

- 發願主에 의한 사경소로의 서사의 발주
- 필요 물자의 조달 준비 - 用度解案(筆, 墨, 紙[寫經 料紙, 文書 料紙] 등의 필요 물자의 견적서), 雜物申請解案(그 외 필요 물자의 청구서)
- 물자의 수납 - 雜物收納帳
- 繼, 打, 界를 위한 裝潢⁶⁾으로의 經紙의 幢당과, 未寫卷子の 受取 - 充裝潢帳・裝潢上紙帳(繼-大豆糊에 의해 經紙를 풀을 발라 이음, 打-經紙를 두드림-平滑性 향상·먹의 번짐 방지와 繼目的의 강화를 위한 처리, 界-罫線을 긋는 공정. 그 외, 端繼紙・假軸⁷⁾의 장착 등)
- 외부에 본경(원래의 경권으로 서사의 지본이 됨)의 대출 요청과 출납 관리-請經文(送狀)・經疏出納帳
- 經師에게 經紙, 筆, 墨의 幢당-充紙筆墨帳
- 經師에게 本經의 幢당-充本帳
- 교정(誤字, 墮字, 衍字[行]의 체크)을 위한 교생⁸⁾의 未校正新寫經의 幢당과 교정 종료 후의 受取-校帳
- 卷物로서의 제본 작업을 위한 裝潢의 新寫經의 幢당-充裝潢帳
- 經師, 校生, 裝潢으로부터의 월별 작업 보고-手實
- 상급 기관에 대해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布施(급여)의 청구-布施申請解
- 經師들에게 布施 지급-布施充帳
- 상급 기관에 작업 내용의 보고-告朔解
- 그 외-請暇解(休暇願), 不參解(결근계), 月借錢解(借金證文) 등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일부에는, 권말 紙背에 제작 과정에 적어 넣은 서사나 교정의 기록이 남아 있다. 서사 작업의 단계에서는 假軸은 冒頭部에 붙이기 때문에, 현상의 권말 지배는 경권의 가장 바깥에 노출하게 된다. 거기에 경권명, 권차, 담당 경사명, 용지수, 담당 교생명, 교정의 결과, 정서(교정 결과에 근거하는 정정 작업), 완료의 확인 등의 기재를 수시로 적어 넣었던 것이다. 그 기재에 의해 작업의 진척 상황이 한 눈으로 파악될 수 있고, 또 사무 부문에서는, 手實帳⁹⁾의 기재와

6) 裝潢은, 1장씩의 사경 料紙를 가공(繼・打・界)해서, 사경을 하는 전단계까지의 준비를 행하는 인원. 또 사경 종료 후는 卷物로 만드는 작업(裝書)도 담당한다.
 7) 端繼紙・假軸은, 서사의 단계에서 붙이는 임시 裝丁. 자세한 것은 이 책에 수록된 佐々田悠의 논문을 참조할 것.
 8) 校生은 교정의 담당자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최저 2회의 교정 작업이 실시된다.
 9) 經師・校生 등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사무 방면 작업보고서인 수실을, 이어 붙여 卷物로 만든 手實帳으로서, 주로 급여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이용되었다.

현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사 종료 후에는 필요가 없어진 부분을 절단해서 완성시의 軸을 장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기재가 모든 경권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완전하게 절제되지는 않더라도 축의 장착 시에는 끝단의 天地가 잘려 버리기 때문에¹⁰⁾ 기재가 傳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단지 결손을 포함한다 해도, 경권의 소성을 추량할 때에는 극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삼화 4>로서, 성어장 『신호경운경』에서 권말 紙背 기입을 가지는 경권 가운데, 그 기재 내용이 비교적 잘 남은 것을 보인다.¹¹⁾ 『卷四<二十五>』는 권차와 종이수, 『生江』은 경사명(生江秋万呂), 『初校水通』은 초교의 교생명(大和水通), 『八月□』는 초교 실시일, 『再校大伴如上』은 再校校生名 등 서사나 교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略記되어 있다.

이번 경우는 이들 권말 紙背의 기입이 寶龜年間(770~781)의 五部一切經 관련 문서와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五部一切經은, 동대사사경소에서 寶龜年間に 서사된, 先一部, 始二部, 更二部(更一部, 今更一部) 등 각각의 일체경에 대한 총칭이다. 이하, 정창원 문서로 알 수 있는 각 일체경의 서사 사업의 개요를 적는다.

○ 五部一切經

(始二部과 更二部는 관련이 깊어 『四部一切經』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다. 先一部는 그것과 帙 구성이 다르다. 약간 이질적인 일체경)

- A. 先一部一切經 … 神護景雲 4年(770) 5月~寶龜 2年(771) 12월에 실시(서사는 神護景雲 4年 6月~寶龜 2年 9月). 4,585卷을 서사했다. 완성 후에 藥師寺에 수납되었다.

10) 경권의 완성 시에는, 권말의 天地를 잘라낸 후에 축을 장착한다. 이유는 추측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경권을 감을 때, 잘라내지 않고 축을 장착한 경우와 비교해서 축을 기울여, 감는 것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즉, 종이에 대한 축의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감을 수 있다) 등의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11) 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 卷28(No1521). 卷末 紙背 기입이 남은 마지막 1紙는 앞에 新補紙를 끼워 있고 있다. 이 紙背 기입에는 ‘卷四<二十五>’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래는 현존하는 卷24에 속했던 것이 어떤 이유로 벗어나, 정리의 단계에서 잘못되어 卷28에 이어진 것은 아닐까.

- B. 始二部一切經 … 寶龜 2年 10月~4年 6月 지나서까지 실시(서사는 寶龜 3年 2月~同 4年 6月). 西大寺寫經所¹²⁾에서 착수되었던 서사 사업을 이은 형태로 개시. 二部の 서사는 동시 진행. 9,218卷을 서사(그 가운데, 3,723卷은 西大寺寫經所에서 서사). 일부는 藥師寺에 수납되었다. 또한, 充本帳(본경의 충당 기록)·充裝潢帳(裝潢으로의 新寫經의 충당 기록)부터, 서사된 거의 모든 경권명이 판명된다.
- C. 更二部一切經(二部를 동시에 서사한 것이 아니고 一部씩 잇따라 서사. 9,218권의 서사를 계획)
- i. 更一部一切經 … 寶龜 4年 6月~ 5年 5月 또는 6월에 실시. 4,609권을 서사.
- ii. 今更一部一切經 … 寶龜 5年 5月 또는 6月~寶龜 7年 6월에 실시. 4,609권의 서사를 예정했었다(실제 서사 권수는 미상. 手實帳으로부터는 4,462권의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사경소 최후의 서사 사업.

先一部經은 神護景雲 4年 5월부터 寶龜 2年 12월까지, 始二部經은 同年 10월부터 4年 6月 지나서까지, 更一部經은 同年 6월부터 5년 5월 또는 6월까지, 今更一部經은 同年 5월 또는 6월부터 同7年 6월까지 각각 실시되어, 각각 1부 4,600권 전후를 서사했다. 始二部經이 二部 동시에 서사된 것 이외에는, 서사시기가 거의 겹쳐지지 않는다. 寶龜年間은 동대사사경소의 활동 시기의 最末期에 해당하고, 사무 장부도 판에 박힌 작업 내용을 반영해서 약간 단조로운 내용이 되지만, 검토에 있어서는 충분한 質과 量의 사료가 잔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도, 이번에는 手實帳의 기재가 주된 단서가 되었다(<삽화 5>).

4. 同定の 手法

이번에 행한 경권의 同定の 방법은 이하와 같다.

우선 寶龜年間의 手實의 기재를 단서로, 추정되는 담당 經師마다 대상 경권을 그룹으로 나눈다. 이 단계에는, 手實記載의 경권명, 권차, 용지, 수 등으로 경권의 현물과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담당 經師를 산출해서, 대략적인 정리를 임시로

12) 西大寺는 天平寶字 8年(764)에 孝謙天皇(重祚해서 稱徳天皇)의 發願에 의해, 東의 동대사에 필적할 寺院으로 건립된 사원. 사경소가 놓여져, 한 때는 대량의 경권을 서사했다.

설정하는 정도로 한다. 그 후에, 특히 그 經師의 서사임이 확실성이 높은, 이하의 경권을 검토 대상으로서 뽑아낸다.

- ① 經卷 卷末 紙背의 기입(경권명·권차·담당 경사명·용지수·담당 교생명·교정 결과·正書 完了의 확인)이 手實의 기재와 일치하는 것.
- ② 手實에서 분담 서사(一卷의 분담 서사, 同帙內僚卷의 분담 서사)의 기재와, 현존 경권의 서사 상황이 대응하는 것.
- ③ 현존 경권의 一帙의 紙數 구성이, 手實의 기재와 일치하는 것(同一本經[底本]을 이용해도, 別事業의 新寫經에서 帙의 紙數 구성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음으로, ①~③부터 그 經師의 문자의 특징을 추출하여(點劃의 배열, 隙間의 넓고 좁음, 逆筆의 유무, 筆勢 등), 그것을 기준으로 ①~③ 이외의 경권을 그 經師의 필적으로 판단해도 좋은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尊’과 같은 글자와 같이 비교적 쓰는 이의 특징이 나타나기 쉬운 20-30개의 문자를 골라, 비교, 검토를 더하고 있다(<삽화 6>). 그때 종이의 질과 크기, 界線의 규격, 軸端의 색·형상·크기 등도 참고하였다. 이들의 검토에서는 丸善주식회사 제작의 컬러 디지털版 『聖語藏經卷』을 활용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의 경우, <삽화 7>은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摩訶摩耶經』(No1029)으로 권말 지배에 기입이 남아 있다. 『摩訶摩耶經』이라는 경권명 이하, 용지수 ‘三十三’, 경사 이름인 ‘壬生’, 初校 담당 교생명과 교정 결과인 ‘□淨成落余六’, 마찬가지로 再校에 대해서 ‘二校大伴如上’ 등, 서사, 교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略記되어 있다. 한편 <삽화 8>은 寶龜 6년 6월 29일의 壬生廣主手實(『大日本古文書』二三 373. 『大日本古文書』는 이하 ‘大日古’라고 略記)이다. 동년 동월의 壬生廣主가 종사한 서사 작업에 관한 보고서이나, 이 가운데에 『摩訶摩耶經 <三十三>』의 서사에 관한 기재가 있어, 권말 紙背 기입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상으로부터 이 『摩訶摩耶經』 서사의 담당 경사가 壬生廣主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경권으로부터 그가 어떠한 문자를 쓰는지, 그 필적으로 판명된다. 그 문자의 특징으로서, 이 경권으로서 좋은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된다. 廣主는 특징적인

문자를 쓰기 때문에, 異筆, 同筆의 판단은 비교적 용이하다. 예를 들면 今更一部經의 手實의 기재로부터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佛說稱揚諸佛功德經卷下』(No1648)가 廣主의 서사일 가능성이 인정되나, 이 경권의 문자를 앞서 『摩訶摩耶經』의 그것과 비교하면 동일인의 서사인 것이 명백하고 그 결과 『今更一部經』에 속하는 것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삽화 9>).

그런 다음 ②의 경우에 대해서이지만, 寶龜 7년 2월 26일 占部忍男手實(大日古 二三610)에는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第3帙 第10卷의 서사에 대한 기재가 있고, 그 注記에 ‘生江秋万呂寫遺所占部忍男寫五枚’라고 있다(<삽화 10>). 대응하는 경권이 성어장 『신호경운경』에 남아 있어(No1523) 手實에 注記된 해당 부분(第18紙)를 확인하면, 실제로 제9행 이전과 제10행 이후에서는 필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삽화 11> · <삽화 12>). 이 경우에는 占部忍男와 生江秋万呂라는 두 사람의 필적을 판명하게 되어, ①의 경우와 같이 양쪽의 이름의 서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다른 현존 경권 문자를 일일이 검토함으로써, 그 확실성이 높은 것을 실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의 경우는 정리된 권수가 갖추어지는 경권이 대상이 된다. 寶龜 6년 정월 4일 日栗前五百繼手實(大日古 二三 80)에서는 大方廣佛華嚴經(新譯) 第4帙 10卷의 서사가 보고되었다. 聖語藏 『神護景雲經』에는 대응하는 화엄경 10권(卷31b # ~38b # · 39 · 40b # [No1069 · 1071 · 1073 · 1076 · 1078 · 1080 · 1082 · 1084 · 1085 · 1087])이 남아 있고, 이들의 紙數는 手實의 기재와 완전 일치한다. 또 이들의 문자는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고, 모두 今更一部經에서의 五百繼의 서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판명된 문자의 필적을 기준으로, 성어장 『신호경운경』안의 五百繼의 서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경권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확실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경권을 기준으로, 성어장 『신호경운경』 전권에 대해서 검토를 더했다.

5. 관련되는 제 문제

경권의 성격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 깊은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 몇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 예를 들면서 서술한다.

○ 선행하는 사경 사업의 성과의 이용

寶龜 6년 3월 2일 日大宅童子手實(大日古 二三 422)에는 毘尼摩得勒伽의 서사에 관한 기재 옆에 ‘一卷十三枚前人寫用紙云顯申’이라는 紙箋이 붙어 있다 (<삽화 13>). 현존하는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해당 권을 확인하면, 第14紙 第3行 이후로, 그때까지와 다른 필적으로 변화하여, 手實의 기재와 대응한다(<삽화 14> · <삽화 15>). 이 大宅童子手實은 『今更一部經』의 서사에서 작성된 것 가운데, 이 毘尼摩得勒伽가 최종적으로 『今更一部經』에 편입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상의 분담 서사와 같이 다른 서사 담당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 또 全紙에 걸쳐 界線의 규격이 『今更一部經』과는 다른 점에서 이 경권은 『今更一部經』에 선행하는 서사 작업에서 書寫未了卷이어서, 그대로의 상태로 사경소에 보관하다가, 『今更一部經』 서사의 단계가 되어 그 가운데의 一卷으로 하기 위해, 서사를 완료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第14紙 지배 배상 상단에는 『□寫畢』이라는 朱筆 기입이 있으며, 이 종이에 일단 서사가 종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第15紙부터 料紙의 질이 변화해서, 『今更一部經』의 단계에서 새롭게 종이를 이어 서사를 계속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선행하는 서사 사업에서 성과의 일부를 이은 케이스는 그 밖에도 확인할 수 있다. 寶龜 6년 5월 7일 日大伴部國忍手實(大日古 二三 402)에서는, 大方廣佛華嚴經(新譯) 第8帙 10卷의 서사가 보고되어 있지만, 그 중 권79만, 권차에 이어서 종이 수가 아니라 ‘先寫’라는 注記를 추가하고 있다(<삽화 16>).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해당권의 필적은 大伴部國忍의 그것과는 다르며(<삽화 17>), 始二部經에서 同經을 서사한 山部針間万呂(寶龜 3년 4월 2日 手實[大日古 一

九 268](<삽화 18>)의 문자와 일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는 『今更一部經』에서 針間万呂가 서사한 『佛說持心梵天經』 卷2(No1211) 등의 문자와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삽화 19>). 즉, 始二部經이라는 선행 사업에서 서사된 경권이 어떤 이유(예를 들어, 중복 서사 등¹³⁾)에 의해 그 一切經 세트에서 분리되어, 후에 시작된 『今更一部經』 가운데 한 권으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다.¹⁴⁾ 중단된 서사를 계속 이은 예와 마찬가지로 현물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의미 깊다.

○ 문서 기재와 경권 서사의 실태와의 차이

지금까지 개관했듯이, 정창원 문서의 기재 내용과 성어장 경권을 대조함으로써 개별적인 경권의 소성이 판명되고, 또한 사경 사업의 구체상도 밝혀진다. 그 과정에서는 문서의 기재와 경권 서사의 실태와의 불일치를 찾아낼 수도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今更一部經』에서는 寶龜 6년 6월 2일 日陽胡穗足手實(大日古 二三 369)에서 『阿毘曇八犍度論』 中帙(卷11~20)의 서사가 보고되고 있으나(<삽화 20>), 下帙(卷21~30)에 관한 手實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中帙로서 보고된 각 권의 紙數 기재는 실제로는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中帙이 아니라, 下帙 소속권(卷21~25 · 28~30[No1598~1605])의 紙數에 대응하고 있다(<표 2>).

13) 始二部經의 充本經인 寶龜 3년의 大乘經律論疏目錄(大日古 二-1)에 의하면, 卷79에 속하는 화엄경 第8帙 中, 卷79만이 빠져 있기 때문에, 山部針間万呂에 의해서 재차 서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빠졌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가운데 1卷은 一切經의 세트로부터 빠진 것은 아닐까.

14) ‘先寫’라는 기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 今更一部經 서사 사업 중에 大伴部國忍 이외의 經師가 서사했다. ② 어느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선행하는 寫經사업에서 서사되었다. ③ ‘先寫’는 先一部一切經의 생략으로 同事業에서 서사되었다는 등등, 다양한 해석이 성립될 수 있다.

<표 2> 『阿毘曇八健度論』의 手實 기재와 現物과의 대응

	卷1	卷2	卷3	卷4	卷5	卷6	卷7	卷8	卷9	卷10
中帙 (手實記載)	24 空1	18 空1	15	13	12	11	22	18 空1	23	22
中帙 (聖語藏本)	17	16 空1	18 空1	18	14	12	18	-	15 空1	16
下帙 (聖語藏本)	21 尾欠	18	15	13	12	-	-	18 空1	23	22

즉 中帙 서사의 명목으로, 내용적으로는 下帙의 서사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手實 기재의 혼란은 兩帙 모두 동일인이 필사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지만, 남겨진 문서만으로는 모르는 이러한 불일치나 오류가 경권과 비교 대조함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경우이다.

경권의 분단 서사의 상황이 문서와 경권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경권의 同定에 즈음해서 큰 단서가 되는 것은 이미 서술했으나,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今更一部經』에서는 大方廣佛華嚴經(新譯) 第6帙 第8卷을 壬生廣主가 全紙書寫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寶龜 6年 2月 2日 壬生廣主手實[大日古 二三 420], <삼화 21>), 성어장 『신호경운경』에서 대응하는 경권(卷58[No1120])을 조사하면, 全21紙(卷首欠) 중, 廣主의 필적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第6紙부터 9紙의 途中까지와, 第16紙부터 17紙의 途中뿐이며, 그 외는 다른 사람에 의해 서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삼화 22>). 界線의 규격 등의 서사 형식으로부터 해당 권이 『今更一部經』에 속할 가능성은 높으나, 이와 같은 불일치가 생긴 것이다. 第1紙부터 第5紙까지의 필적은, 거의 동시기에 舊譯의 화엄경 第6帙을 서사한 秦礪上의 필적과 유사하며, 充本の 잘못 등으로 다른 사람이 서사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하지만 분명하지 않다.¹⁵⁾ 手實에 의한 작업 보고는 布施 支給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엄밀성이 요구되지만, 당사자

15) 第9紙 도중에서 15紙, 第17紙 도중 이후의 문자는, 廣主·礪上 모두와도 일치하지 않아, 서사담당자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인 경사끼리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서라는 모양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무 처리의 一面이 垣間에 보이는 사례이다.

이상으로 이번 조사는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실체 해명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했던 조사이지만, 문서와 경권을 대조함으로써, 문서의 기재 내용의 의미가 명확해 지거나, 문서의 기재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권 서사의 실태가 엿보이거나 하는 것, 부산물로서의 성과도 몇 가지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하나씩 늘려 쌓아감으로서 금후, 나라시대의 사경 사업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6. 聖語藏 『神護景雲經』의 실체

이상, 누누이 서설해 왔으나, 이번의 검토를 통해서, 성어장 『신호경운경』의 대부분이 『更二部一切經』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今更一部一切經』에 속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斷簡 35권을 제외한 705권 중, 추정분을 포함하여 『今更一部經』이 639권, 『신호경운경』이 4권, 『先一部經』이 2권, 『始二部經』이 8권, 『更一部經』이 4권, 不明이 48권이라는 결과였다.¹⁶⁾

寶龜年間の 五部一切經 가운데, 『先一部經』과, 『始二部經』의 일부는 藥師寺에 수납되었으므로, 성어장 『신호경운경』은 『始二部經』의 나머지 일부와 『更二部經』일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이 『更一部經』이었다. 선행하는 일체경 사업의 서사 경권은 어떠한 이유로 본래의 세트로부터 나와 『今更一部經』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大寺要錄』(12世紀 初頭に 성립된 동대사의 寺誌)卷4 諸院章 第4에는 ‘一,

16) 개개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拙稿, “聖語藏經卷『神護景雲二年御願經』について,” 『正倉院紀要』 34(2012) 참조. 聖語藏 『神護景雲經』의 基礎데이터(1紙의 寸法, 界線の 規格, 紙數, 軸의 種類, 卷末 紙背 기재, 대응하는 正倉院문서)를 1卷마다 정리하여 판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느 것인가의 一切經에 속하는 것으로, 누가 서사를 담당했을까가 정리되어 있다.

下如法院 納一切經辛櫃卅五合<十二合 皇后宮 四合 審詳大德/自余大佛殿移納也>라는 기술이 있다. 즉 당시의 東大寺下如法院(동대사의 경장)에는 五月一日經과 審祥(나라시대의 화엄종의 승려. ‘新羅學生’이라고 한다. 그 장서는 700권 이상 있다고 한다) 유래의 일체경 이외에, 唐櫃 19함에 수납된 일체경이 수장되어 있었다. 이번의 검토 결과를 감안하면, 『今更一部經』이 그 일부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今更一部經』에는 願文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由緒도 모르고, 그 외의 경권 속에 매몰시켜 ‘自余’라는 과학 방법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성과와 과제

성어장 第4類 『신호경운경』으로 분류된 경권의 대부분은 『今更一部經』이었다. 正眞의 『神護景雲經』은 內裏系의 사경 기관에 의한 서사가 판명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도, 동대사사경소에서 서사된 『今更一部經』이 第4類의 실체였다는 결론은 지극히 온당하다.

통상 願文이 없는 사경은 기껏 대략적인 서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지만, 대응하는 문서가 남은 성어장의 『신호경운경』은 서사 시기, 담당 경사 등을 판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귀한 자료이다. 나라시대의 일체경이 전해져, 그 서사 사업을 수행할 때에 축적되었던 문서·장부 즉 정창원문서가 사업의 전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五月一日經』에 관해서만 성립하는 기적적인 상황이지만, 새롭게 『今更一部經』에서도 성립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경권에 남은 흔적과 문서를 서로 비추어 보는 것으로, 금후에는 한층 더 상세한 내용이 판명될 것이다(구체적으로는, 枚替[서사가 끝난 料紙 1枚를 바꾸는 것]이나 勘出[교생이 誤字나 落字를 검출하는 작업. 경권에 남은 白書는 감출 작업의 흔적]·正書[감출 결과에 근거하여, 경사 등이 정정을 가하는 것] 등의 작업 공정. 또 경사의 작업 진행 방법 등).

또 『五月一日經』과 『今更一部經』의 비교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五月一日經』가 『四部一切經』(始二部·更二部)의 본경이라는 설이 있었다. 이것은 寶龜年間に 同經이 동대사에 존재했다는 것 등을 주된 근거로 하는 설로, 양자의 서사 총권수의 상위(『五月一日經』은 추정 7,000권, 『今更一部經』은 4,600卷餘)로부터 異論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응하는 경권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개행 위치, 자체, 자형, 分卷 위치 등에 대하여, 양자가 매우 근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삽화 23>). 대응하는 전권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五月一日經』이 『四部一切經』의 본경이었을 가능성은 극히 높아졌다(『五月一日經』은 『開元釋教錄』 入藏錄의 經律論賢聖集傳을 하면서, 그 이외의 別生經·疑僞經·目錄外經·章疏類 등을 광범하게 포함한다. 『四部一切經』은 賢聖集傳이나 章疏 등은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서사를 했기 때문에, 總數의 상위가 생겼을 것이다).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본경과 그것에 바탕을 두는 新寫經의 현물이 모두 남아 있다고 하는 상황도 극히 귀하다.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사경에서 무엇을 본경으로 충실하게 베끼고, 또 무엇에 대해서는 본경과 다른 것을 허용했었는지, 나라시대의 사경이라는 행위 그 자체의 실태에 접근할 수 있다. 덧붙인다면, 현재 『五月一日經』에 남아 있지 않은 경권에 대해서도, 『今更一部經』에서 그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창원문서에 남은 『五月一日經』의 請經 관계문서를 구사하면, 다른 여러 곳에서 들여온, 근본이 되는 본경의 성격까지 헤아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성어장 『신호경운경』 가운데, 실체 불명이었던 경권의 검토도 금후의 과제이다. 예를 들면, <삽화 24>로서 보였던 『四分律』 卷24(No1699) 등은 內題에 ‘四分律藏卷第二十四<二分律/卷第四>’라고 되어 있으나, 정창원문서 중 櫃納經疏道具目錄(天平 17年 9月, 大日古 八 576)에는 ‘乙櫃’ 納在品으로서 ‘四分律一卷<第四/不知本所>’의 기재가 있어 양자가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경소가 사원·승려·귀족 등이 어디서인가 차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채 차용한 장소도 모르게 되어 그대로 소장하게 된 예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면서, 실체 불명 경권의 이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前出의 審詳大德一切經의 일부를

포함할 가능성도 상황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번의 검토로, 『신호경운경』이나 『五部一切經』의 界線의 규격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 각각의 界線의 규격에 대해서 이하에 보인다(<표 3>).

<표 3> 성어장경권으로부터 유추한 나라시대 후기 서사 일체경의 界線 규격

	界高	界幅
神護景雲經	23.2~23.6cm	2.3~2.4cm 전후
先一部經	22.6~22.9cm	2.4~2.5cm
始二部經	23cm 전후	2.3cm 전후
更一部經	23cm 전후	2.3cm 전후
今更一部經	21.0~21.5cm 전후	2.1cm 전후

그 가운데에서도 『今更一部經』의 界高(21.0~21.5cm 전후)가 다른 경권에 비해 낮았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界高의 고저는 僚卷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현존하는 나라시대 사경 전체의 재검토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단, 先一部·始二部·更一部經에 대해서는,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藤田미술관 소장의 ‘大般若經’(魚養經…藥師寺에 전래되었던 1세트의 大般若經. 현존 470卷餘)에 대해서 검토한 野尻忠氏는 이들이 寶龜元年에서 同 2年 동대사 사경소에서 『先一部經』이 서사되었던 시기에 배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先一部經』 그 자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어장 이외에도 나라시대 후기 서사로 보이는 경권은 많이 현존하고 있다. 이번의 성과를 활용하여 금후, 소장 기관의 담장을 넘은 횡단적인 검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 성과와 과제를 누누이 서술해 왔으나, 마지막으로 성어장경권 DVD의 유효성에 대해서 적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번에는 경권의 현물을 늘여 놓고 문자의 검토 작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丸善주식회사 제작의 성어장경권 DVD를 유효하게 이용했다. 부분 확대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 DVD를 사용하면, 다음에서 다음으로 종횡무진하게 다양한 문자의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다. 기술했던 문서와

경권과의 비교, 『五月一日經』과 『今更一部經』의 비교 등의 과제로 다를 때에도, 필요불가결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작업 보고가 이 DVD를 보다 넓은 분야에서 활용해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매우 고마울 따름이다.

<참고 문헌>

- 飯田剛彦. “聖語藏經卷『神護景雲二年御願經』について.” 『正倉院紀要』 34(2012).
- 大平聰. 『正倉院文書と古寫經の研究による奈良時代政治史の検討』, 1993~1994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一般研究(C)研究成果報告書, 1995.
- 榮原永遠男. “內裏における勸經事業—景雲經と奉寫御執經所・奉寫一切經司—.” 『奈良時代の寫經と內裏』. 塙書房, 1995/2000.
- 榮原永遠男. “奉寫一切經所の寫經事業.” 『奈良時代寫經史研究』. 塙書房, 2003.
- 新川登龜男. “寫經事業と願文.” 丸善株式會社『聖語藏經卷』神護景雲二年御願經刊行推薦文, 2007.
- 東大寺圖書館. “正倉院聖語藏經卷調査報告(一)—奈良時代書寫の華嚴經について—.” 『南都佛教』 86(2005).
- 野尻忠. “藤田美術館所藏『大般若經』(魚養經)の調査研究.”, (科研基盤研究(A) 『奈良時代の佛教美術と東アジアの文化交流』, [課題番號20242004, 研究代表者湯山賢一, 2008~2010年度]報告書 第1分冊. 奈良國立博物館, 2011.
- 野尻忠. “藤田美術館・藥師寺ほか所藏の大般若經(魚養經)について.” 『天竺へ<三藏法師3万キロの旅>』展示圖錄. 奈良國立博物館, 2011.
- 森明彦. “奈良朝末期の奉寫一切經群と東大寺實忠.” 『正倉院文書研究』 7(2001).
- 山下有美. “寫經機構の変遷.” 『正倉院文書と寫經所の研究』. 吉川弘文館, 1995/1999.
- 山下有美. “勅旨寫一切經所について—皇后宮職系統寫經機構の性格.” 『正倉院

文書と寫經所の研究』. 吉川弘文館, 1996/1999.

山下有美. “正倉院文書研究における帳簿論—寶龜年間の寫經所の帳簿管理技術.” 『民衆史研究』 58(1999).

山本信吉. 『古典籍が語る — 書物の文化史 —』. 八木書店, 2004.



<삽화 1> 聖語藏 全景

<p>一 第百十九號 廣博勝淨不退轉輪經 五卷 各卷本經(或譯經)七卷(九上)至(廿五) 各卷(或譯經)四卷(或譯經)七卷(九上)至(廿五)</p> <p>卷二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卷三</p> <p>卷四</p> <p>卷五</p> <p>卷六</p> <p>一 第百廿號 佛本行集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一 第百廿一號 佛說寶雨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 一 第百廿二號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毘尼耶那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 一 第百廿三號 佛說無常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 一 第百廿四號 根本薩婆多部律攝 四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卷二</p>	<p>一 第百十五號 持心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一 第百十六號 大方廣十輪經 貳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卷丁</p> <p>一 第百十七號 等集衆德三昧經 四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一 第百十八號 分別緣起初勝法同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卷九</p> <p>一 第百十九號 佛本行集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一 第百廿號 佛說寶雨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 一 第百廿一號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毘尼耶那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 一 第百廿二號 佛說無常經 壹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 一 第百廿三號 根本薩婆多部律攝 四卷 聖本經(或譯經)下口目經(或譯經)下口目經</p> <p>卷二</p>
--	--

<삽화 2> 『正倉院聖語藏經卷目錄』

佛說諫王經

王今者霍然不復見之此者元常之明證也
 古尚如此况於今日王熟思之无念姓姓无
 受倭言證入人罪當受忠諫治以節度當畏
 地獄酷治之痛諸舍益之類皆貪生活不當
 敬之佛說經竟王意即解頌為弟子即受
 五式頭面著地為佛性礼而去

皇后藤原氏光明子奉為
 尊考贈臣一位太政大臣府君尊妣
 贈皇一位攝政太夫人敬寫一切經論及
 律莊嚴既了伏願憑斯勝因奉資
 冥助永在菩提之樹長遊散若之津又
 願上奉 聖朝恒逢福壽下及寮
 采共盡忠節又光明子日茲誓言私濟
 沉淪勤除煩障妙窮諸法早契菩提
 乃至傳燈冥冥洪方天下間名持衆種
 福消灾一切違方會耶覽路

五十一年五月日記

神護景雲經卷第四

維神護景雲二年歲在丙申五月
 十三日景中弟子謹奉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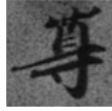
先聖敬寫一切經一部工夫之莊嚴
 畢矣法師之轉讀畫焉伏願徂山
 之鳳輅白蓮揚而寫壑冰水之龍
 驟泛香海而翳眾蓮披不測之了義
 永證稱高之法身速覺存正修周
 動植同益景福興沐禪流或變來
 回散作頌曰

非有慈仁誰明正法惟朕仰心珍領
 慧業權門利廣乎般若知力用妙乎
 登岸散對不居之歲月式垂同極之
 頌翰

<삼화 3> 五月一日經(上)과 神護景雲經(下) (卷末願文部分)



No.1654石川宮衣



No.1398大宅童子



No.1096中臣船麻呂



No.1692大友路万呂



No.1516生江秋麻呂



No.1147足奈公麻呂



No.1523占部忍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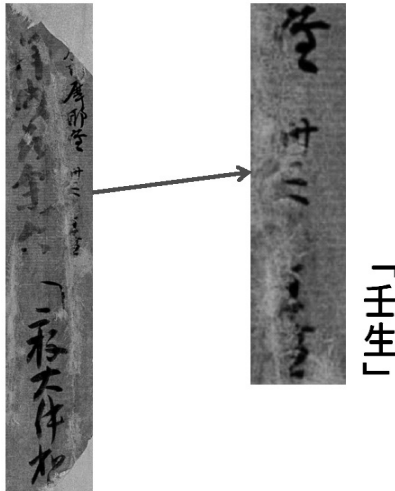


No.1628巧淨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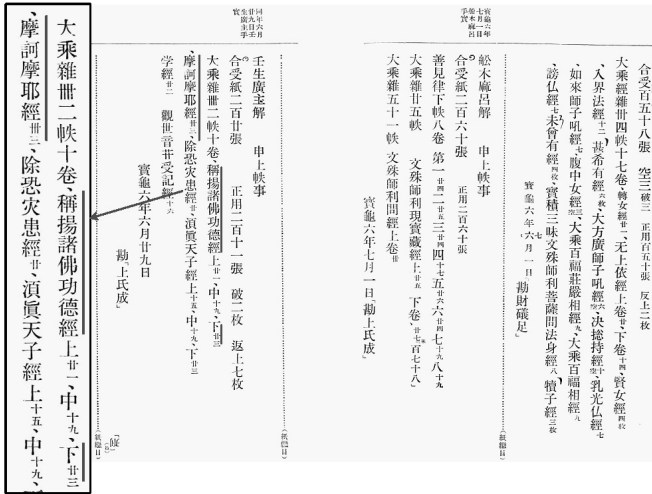


No.1162中室淨人

<삽화 6> 서사자의 차이에 의한 '尊'字的 다양성의一端
(No는 해당하는 聖語藏經卷의 ID番號)



<삽화 7> 摩訶摩耶經(No1029) 卷末紙背에 기입



<삼화 8> 壬生廣主手實(寶龜 6·6·2) (統々修22-3、大日古二三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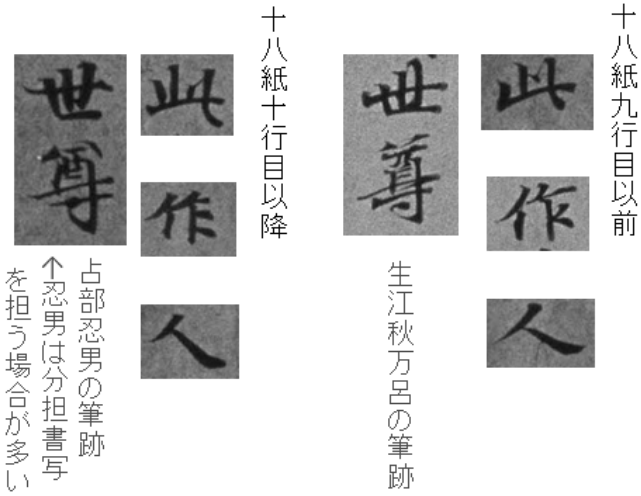


仏説稱揚諸仏功德經卷下No.1648



摩訶摩耶經No.1029

<삼화 9> 壬生廣主筆과 推定되는 經卷의 文字 比較



<삽화 12> 同經 同紙에 있어서 筆跡의 變化



<삽화 13> 大宅童子手實(寶龜6·3·2) (続々修22-3)에 붙은 付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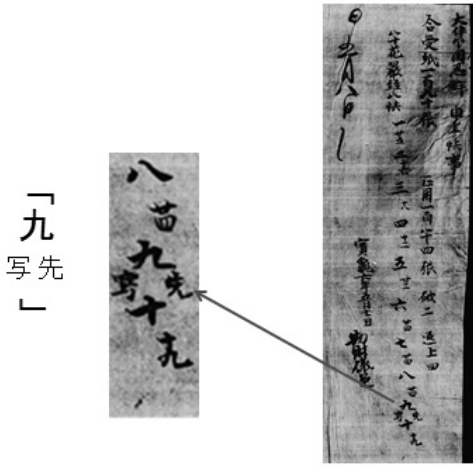
波羅夷
 問頗有殺人犯波羅夷殺人犯波羅夷邪
 答有是人作人想殺犯波羅夷若異想殺不
 犯欲殺非人而殺人不犯波羅夷
 問頗有比丘說過人法犯波羅夷說過人法
 不犯波羅夷邪答有若不異想說過人法犯
 波羅夷若增上慢說不犯波羅夷
 問頗有犯此事得波羅夷即犯此事不犯波
 羅夷答有若比丘摩觸身犯波羅夷比丘
 摩觸不犯波羅夷比丘尼隨順償比丘波羅
 夷比丘隨順不犯波羅夷比丘尼履履塵穢
 波羅夷比丘履履不犯波羅夷
 問頗有犯此事僧伽婆尸沙即犯此事不犯
 僧伽婆尸沙答有比丘比丘尼青已背已

←第14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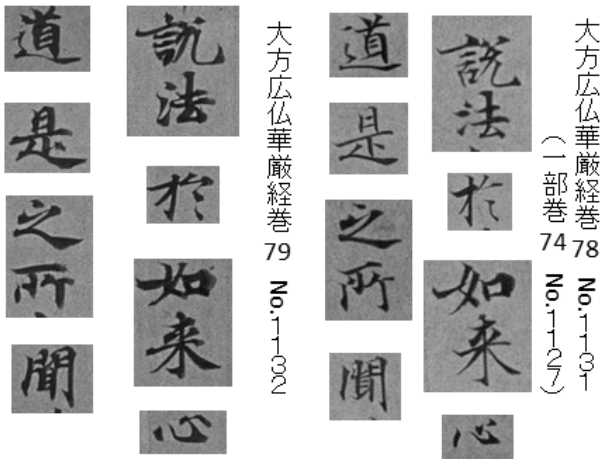
<삼화 14> 毘尼摩得勒伽 卷 1 (No1298) 第13·14紙

十四紙三行目以降
 不犯波羅夷
 比丘
 尊
 尼
 十四紙二行目以前
 不犯波羅夷
 比丘
 尊
 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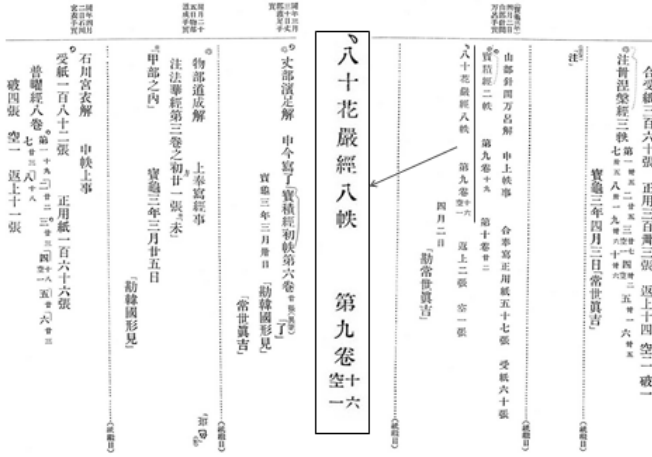
<삼화 15> 同經 同紙의 筆跡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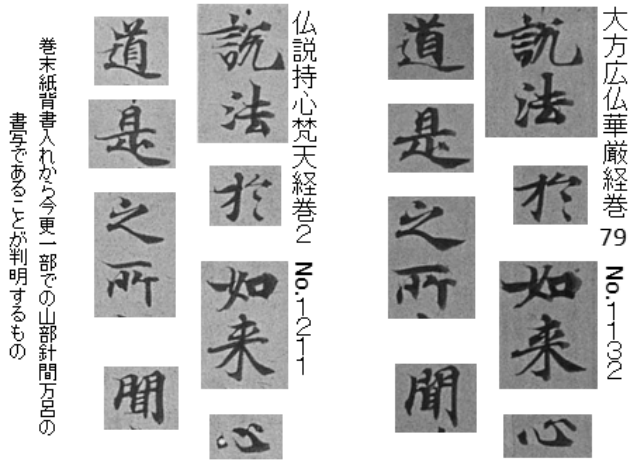
<삽화 16> 大伴部國忍手實(寶龜 6·5·7) (続々修22-3)



<삽화 17> 大方廣佛華嚴經 卷78과 卷79의 筆跡의 相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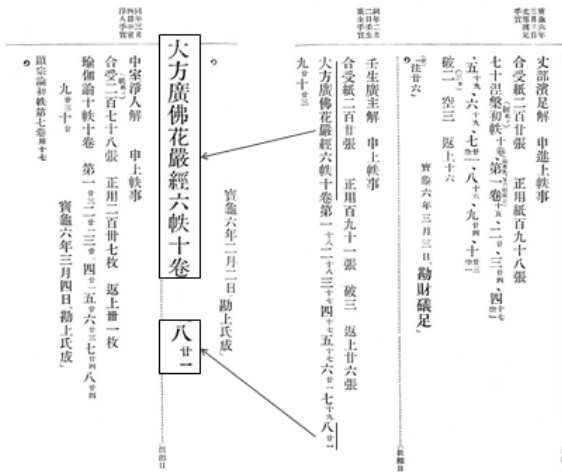
<삼화 18> 山部針間万呂手實(寶龜 3·4·2) (続々修21-1、大日古一九268)



<삼화 19> 大方廣佛華嚴經 卷79와 山部針間万呂 書寫 經卷과의 文字 比較

陽胡穗足解 申上了軼事
 八捷度論中軼事
 受紙壹伯玖拾參張
 正用紙壹伯柒拾捌張
 一廿四 二二八 三三五 四十三 五十二 六十一 七廿二
 八十八 九廿三 十廿二
 返上十二張 空三張
 寶龜六年六月二日
 『勘財磯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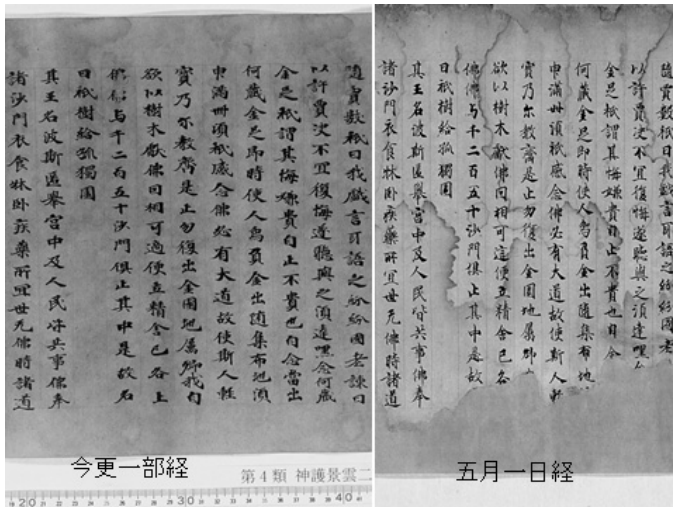
<삼화 20> 陽胡穗足手實(寶龜 6·6·2) (続々修22-3, 大日古二三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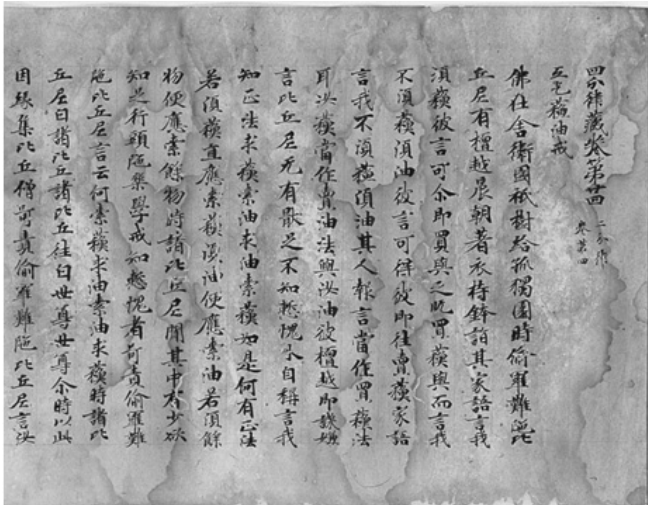
<삼화 21> 壬生廣主手實(寶龜 6·2·2) (続々修22-3, 大日古二三420)



<삼화 22> 大方廣佛華嚴經 卷58(No.1120) 第5·6紙의 筆跡의 變化



<삼화 23> 五月一日經과 今更一部經 각각의 佛說亨經의 比較



<삼화 24> 四分律 卷24(№1699)